

전대 주자들 “4만당원 표심 잡아라”

민주 당권 향해 좌우 ‘당원 여론조사’ 홍보에 사활

다음달 1~2일 실시될 예정인 당원 여론조사가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향배에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박주선 후보 등 ‘빅 4’가 대의원 투표 구도에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종 성적의 30%를 차지하는 당원 여론조사가 최종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박주선 후보 등은 일반당원 1만9천53명, 당비납부 당원 1만9532명 등 모두 3만90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정동영 후보는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박당 당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지지자들의 응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정동영 등 지지 조직을 통한 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동영 후보 측이 일찌감치 지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비납부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이번 당원 여론조사에서 타 당권 주자들과의 상당한 격차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당내 기반이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벌이지 않는다면 당권을 쥐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 후보 측은 그동안 여야 대권 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당원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 선출을 위한 당원 여론조사가 다음달 1~2일 실시된다는 점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조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당비당원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당세가 취약한 지역의 영남지역에서

의 세굴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영남지역의 당비납부 당원이 많지 않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당비당원 896명 중 여론조사 대상이 854명이기 때문에 ‘대표 프리미엄’이 발휘될 여지가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 측은 당비 납부 당원의 30~40% 정도가 호남 출신으로 분석됨에 따라 ‘애향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주

도하는 ‘호남 인물론’을 토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 측에서는 당원 여론조사도 1인 2표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나머지 1표를 확보할 수 있어 예상 밖의 선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의원 투표 구도가 누구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 최종 당권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국회지도부와 만찬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저녁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이 대통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근혜·이재오 대권 소통 행보 시동?

박, 친이 재선·초선의원과 잇단 회동

이, 김무성과 화해·여의포럼과 오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계파를 뛰어넘는 교차 행보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친이 직계인 강승규·김영우·조해진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한데 이어 28일에도 친이계 재선 의원들과도 오찬 회동을 했으며, 전날에는 박준선·이병래 의원 등 수도권의 친이계 초선 의원 5명과 만났다.

반대로 이 장관은 친박(친박근혜)계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한때 갈등 관계였던 김무성 원내대표와 극적으로 화해한 데 이어 지난 10일엔 김영선·이해춘·구상찬 의원 등 수도권 친박 의원 3명을 시작으로, 이날

친박 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의포럼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2007년 경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며 깊어진 계파 간 갈등의 골을 메우는 시도로 오는 201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계파화합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해석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여권의 중심축을 담당할 분들이 그동안 같은 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았던 게 이상한 일”이라며 “이들의 교차 행보로 조금씩 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합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적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당내 대

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권 프로그램의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경우 지지율에 있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후발 주자들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고 잠잠한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서둘러 체비를 갖추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일상적인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특임장관’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권 행보 해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대신 이 장관이 범친이계의 중심에 서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친이계의 중심인물인 이상득 의원이 정치 2선으로 물러나 있는 만큼 친이 진영 전반을 아우르는 동시에 친박과도 관계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여당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행보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혁신도시 농어촌공 본사 신축설계 공모”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대표 의원인 최인기(사진) 국회의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농농어촌공사가 총 사업비 1542억 규모의 본사 사옥에 대한 신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승인된 17개 기관 중 기관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2곳(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보호위원회)을 제외한 15개 공공기관이 금년 말까지 모두 부지매입, 청사 설계 공모, 청사 임차계약 등을 완료하도록 돼 있어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도청별관 철거 광주정신 말살”

민주당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은 28일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 “1980년 5·18 항쟁정신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별관을 철거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철거 방침을 반대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27일 윤상원 열사는 계엄군의 화염바사기에 맞아 새까맣게 그을린 채로 발견되는 등 도청별관에서 150구의 시체가 발견됐다”며 “이처럼 보존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장소를 철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광주시민은



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은 사라진 문화유산도 새로 건립하는데 왜 우리는 소중한 역사적 유물을 부수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가 별관을 철거하려는 것은 광주시민의 정신을 분산시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저지시키려는 음모”라고 MB정부 음모론까지 주장했다.

지방공기업 사장 청문회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협의회 회의를 열고 윤봉근(사진) 광주시의회의장이 제출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반드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원 5명 검직 직책 사직

광주시의원 5명이 검직규정을 위반해 해당 직책을 사직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체 26명 의원 중 5명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말 해당 직책을 사직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 조영표(서광중학교 운영위원장), 문상필(광주북구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민중(생활체육회 간부), 정현애(5·18 어머니회 이사장) 의원, 민주노동당 강은미(장애인탁구협회 부회장) 의원 등이다. /박지경·최원길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정면 돌파” 野 “현미경 검증”

“국가 소송 패소액 최근 2년간 8천억”

김황식 청문회 신경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는 광범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선 한나라당은 정점이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적극 해명을 무기로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4대장 감사 지연에 대해 김 후보자의 설명 외에 감사를 담당한 은진수 감사위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상황을 설명하면 야당의 예봉을 꺾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문특위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들이 집권 시절 대법관으로서 무난하다고 한 분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은 위원,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찾는다는 자세로 명분 있는 청문회에 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정현 의원 밝혀

국가의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지난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개인 또는 법인의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이 2008년 4638억원, 2009년 3359억원에 각각 달했다.

이는 2007년의 950억원에 비해 각각 4.8배, 3.5배 증가한 규모다. 다만

국가 패소 비율은 2007년 20.9%, 2008년 18.8%, 2009년 18.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패소한 원인으로는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이 대부분이었으며, ‘법원과의 법령해석 등 견해차’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국고의 지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부처의 법적 대응 능력을 키워 국고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ctcl.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회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마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판매 및 대리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지사방문시 행운 가득!

Caticlair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까띠끌레 호남지사 ☎ 0621362-1117 / 010-3608-6394

서강빌딩 매각공고

(위치 :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로변)

- 물건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 면적 : · 대지 : 734m²(225평)
· 건물 : 4,764m²(1,412평)

두암신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

HONAM UNIVERSITY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래!

당신은 도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단은 우수한 교육시설 장비, 명품 교수진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하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단에서 준비하십시오. 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이란?
대기업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기관이 **무료 연수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제도입니다.

교육문의 062) 380-8403~6 Fax 062) 380-8443

- 교육훈련과정 -				
연 번	훈련 과정명	훈련 방법	훈련 일 수	훈련 시 간
1	웹기획&디자인	집체	5	20
2	편집출판디자인	집체	5	20
3	시각디자인	집체	5	20
4	네트워크보안실무	집체	5	20
5	Oracle 10g	집체	10	30
6	Java웹프로그래밍과정	집체	5	20
7	Frame Work개발과정	집체	5	20
8	임베디드·인드로이드 과정	집체	5	20
9	USN System개발	집체	5	20
10	LabView과정	집체	5	20
11	제품디자인	집체+현장	5	20
12	3차원설계및 치수검사	집체+현장	5	20
13	실무자를 위한 고급 Excel	집체	5	20
14	DFSS	집체	5	20
15	ERP회계모듈	집체	5	20
16	ERP물류모듈	집체	5	20
17	PM양성과정	집체	5	20
18	전략기획	집체	5	20
합 계			18개 과정	

주관 :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단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